



설 연휴 해외여행 급증… 취소수수료·출입국 정책 등 체크

공정위-소비자원, 항공·택배 등 설 연휴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항공권 피해사례 많아 주의 요구

#. A씨는 토요일에 여행사를 통해 해외 편도 항공권 3매를 구매하고 214만여원을 결제했으나, 약 40분 뒤 일정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 신청했다. 하지만, 여행사는 휴일은 영업시간이 아니라 취소처리가 안된다며 월요일에 57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 사과농장을 운영하는 B 씨는 지인에게 선물로 사과즙을 택배로 발송했으나, 하루 뒤 운송장번호를 조회하니 '배송완료' 처리됐으나 실제 운송물이 배송되지 않았다. 택배사는 운송물이 분실됐다면서도 손해배상을 지연했다.

#. C 씨는 2022년 1월 온라인쇼핑을 통해 편의점 금액형 상품권 1만원권 2매를 구매하고 1만7800원을 결제했으나 3월 12일인 유효기간 내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90% 환급을 요구했지만 특가 판매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당했다.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탑승수속을 하는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

이처럼 항공권과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 소비자 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설 연휴를 전후해 그간 코로나19 영향으로 억눌렸던 항공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5일 이처럼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 기간 소비자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다. 최근 3년간 이들 분야 1~2월 중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증가 추세다. 항공권의 경우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피해구제 건수가 1만 6721건으로 급증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권의 경우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 ▲택배는 물품 파손·훼손, 분실,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나 잔액 환급거부 등이 꼽힌다.

특히 이번 설은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항공권 구매 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항공권 취소수수료와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 등을 이유로 국가별 출입국 규정이 변경될 수 있고, 일부 항공사나 여행사는 탑승객이 코로나19에 확진돼 탑승을 못해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또 택배를 보낼 때는 물량이 집중되는 때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배송

완료 시까지 운송장,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명절 전후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파손이나 훼손이 우려되는 운송물을 포장 완종재 등을 이용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하고 택배기사에게 이를 사전에 고지하는 게 좋다. 50만원 이상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고지하고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한다.

상품권을 선물하는 경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곳이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피하는 것이 좋다.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짧고 기간 연장 및 환불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해 환급을 요구하도록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하거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연말정산 간소화' 개통… 신용카드·월세 등 세액공제 확대

대중교통비 공제범위 2배 ↑
주택임차금 공제한도 증액

직장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했다. 올해는 대중교통 이용료 공제범위가 2배로 확대되고,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 공제한도도 늘어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는 PDF 파일을 출력해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등 연말정산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진다.

근로자는 흠텍스에서 일괄제공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19일까지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회사는 동의 절차를 마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내려



국세청은 2023년도 직장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

4종(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을 추가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선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비, 월세, 기부금 등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올해는 생계비와 주거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액공제 항목이 추가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1월 15~31일)에는 별도 회원가입 없이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로 본인인증을 거쳐 비회원 상태로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개통한다. 총급여, 주민등록번호, 기납부세액 등 기초자료 등록은 지난 3일부터 시작했다.

/세종=한용수기자



(왼쪽에서 두번째)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설 연휴 대비 천연가스 생산설비 운영 현황과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위해 13일 통영 LNG 생산기지를 방문했다.

/한국가스공사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통영 LNG 생산기지 방문
설 연휴대비 안전관리 점검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설 연휴 대비 천연가스 생산 설비 운영 현황과 안전 관리 실태 점검을 위해 13일 통영 LNG 생산기지를 방문했다.

국내 천연가스 생산량의 약 22%를 담당하는 가스공사 통영 LNG 생산기는 지난 2002년 10월 상업운전 개시 후 지금까지 남부권역 천연가스 공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최연혜 사장은 LNG 선적 설비 및 저장탱크 등 주요 시설을 돌아보며 천연가스 생산 설비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최 사장은 천연가스 생산·공급 설비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과 유지 관리를 강조하고, 설 연휴를 대비해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사장은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 사장은 "천연가스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허정원 기자 zelkova@

"명절 필수 과일, 사과는 향이 은은한 것이 좋아요"

농촌진흥청, 과일 고르는법 소개
배, 매끈하고 검은 균열 없어야
감, 꼭지 깨끗하고 단단해야 좋아
남은 과일은 청으로 활용 추천
맛·영양 풍부 국산 과일 소비 당부

"사과는 향이 은은하고 꼭지가 푸른 색이 도는 것이 신선하고, 배는 상처없이 매끈하며, 열매 전체가 맑고 미세한 검은 균열이 없는 것이 좋아요."

농촌진흥청은 15일 올해 설에 출하되

는 과일 품질이 지난해 못지않게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맛과 영양이 풍부한 국산 과일 소비를 당부하며 과일 고르는 방법을 소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과일 생산량과 저장량 증가로 설 성수기 사과, 배, 단감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각각 2%, 22%,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수용이나 선물용 과일을 고를 때는 전체적인 모양과 색을 살펴야 한다.

감은 꼭지가 깨끗하며 꼭지와 열매 사이에 틈이 없이 붙어있는 것을 고른

다. 또 만졌을 때 단단한 것이 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

청포도(샤인머스켓)는 알이 굵으며 청색보다는 밝은 노란색을 띠는 것이 좋다. 송이는 너무 크지 않고 500~700 그램 정도 되는 것이 당도가 높다. 민감류는 껍질의 작은 알갱이가 촘촘하고 얇으며 색이 진한 것을 고른다.

키위의 경우 구매 후 바로 먹는다면 딱딱한 것보다는 약간 말랑한 것을 고르고, 겉의 수분이 빠져 쪼글쪼글한 것이나 골드키위의 경우 붉은 명자국이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한편, 명절에 먹고 남은 과일은 청을 만들어 차로 즐기면 좋다.

항산화물질이 풍부한 사과와 기침이나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 예방에 좋은 배, 눈 건강에 좋은 감을 얇게 자른 뒤 과일과 설탕을 비슷한 비율로 넣어 2~3일 정도 숙성하면 과일청이 된다.

한편 이달 25일까지 진행되는 농축산물 할인 대전에서는 온라인의 경우 쇼핑몰 누리집에서 할인쿠폰을 발급받고, 오프라인은 회원가입 시 자동 할인 적용된다. 전통시장에서는 할인쿠폰이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